24m 급물살과 지옥폭포

(마13:24-30)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24m 급물살과 지옥폭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24m 급물살과 지옥폭포'
'24m 급물살'이라는 말은 지난여름 8월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가져다가 붙인 제목입니다.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도 두어 차례 가봤습니다만 그 폭포가 토론토 인근에 있는데, 토론토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와있던 19세의 일본 여대생이 아마 방학 중이라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던 중이었나 봅

니다.
그런데 폭포 물이 떨어지는 지점으로부터 24m 상류 쪽에서 친구들과 함께 난간을 의지해서 사진을 찍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여학생이 떨어져서 24m를 흘러서 폭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헬기가 동원되고 구조대원들이 동원되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종된 거죠, 그리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서 죽은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묵상을 해봅니다.
나이아가라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지점은 물이 몰리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세게 흘러들어갑니다.
더구나 24m라고 하면 작은 수영장 길이 정도인데, 그걸 떠내려가는 동안에는 이 여학생의 의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폭포지점에 도달해서 아래로 추락해서 높이 53m를 떨어질 때 그 열아홉 밖에 안 된 어린 여학생의 심정이 어땠겠나 생각해봅니다.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천년 같이 긴 공포가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겠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여학생의 이런 마음 아픈 사고를 접한 일본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선이해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 비유가 이야기 되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36절 이하의 해설에 보면 그 틀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마무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에요.
완료되었다는 것은 의도적인 일정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인 과정이 끝났을 때 가라지들이 모아져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이 '창세부터'라는 말은 이 세상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감추어 진 게 있었다.
그 감추어 졌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삶이 완료될 것이고 이 세상이 끝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 끝나는 지점에 지옥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지옥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세상의 삶에 이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것인지 지옥의 삶을 살 것인지 양쪽으로 갈라지는 기점에 도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지옥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다시 말해 그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일본 여대생의 사고현장으로 돌아가서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폭포가 떨어지는 그 지점으로부터 24m 내에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흐름인데, 이 흐름으로부터 살아있는 동안에 왜냐하면 삶이 완료되고 나면 곧바로 24m 끝의 폭포로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곧바로 지옥폭포가 연결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삶의 흐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것.
이 세상의 삶을 그런대로 살다가 그 끝에 가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24m 흐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가라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틀을 우리가 선이해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은 24m 구간에 흐르는 급물살의 삶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우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급물살에 빠지느냐 마느냐 결

정하는가 하면 현실감(現實感)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제 말씀 드렸던 그 현실감.
현실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현실로 느끼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현심감이 생기면 현실감을 주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실제 있는 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서 다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예를 든 대로, '영국의 지하철에 폭탄테러가 있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현실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됐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기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런던에 어학연수를 가있는 동안에 그 아이가 분명히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 폭탄테러가 일어났다면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됩니다, 현실감을 줍니다.
현실감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열매예요.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더 자세한 내막을 물어본다든지 그 현장에 혹시 한국 사람은 없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현실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이 세상의 삶의 급물살에 빠진 자와 빠지지 않은 자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 세상에 주어지고 있는 사실들, 세상의 삶에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에 현실감을 느끼면 내 마음이 이 세상 삶의 급물살에 빠져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서 살지요, 오늘은 이 사실에 내 마음이 빠져서 현실감을 느끼고, 내일은 저 사실에…
사실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흔히 접할 수 있는 것, 돈이 안 벌린다, 사실이죠? 그 상황이에요, 아직 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내 마음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돈 걱정의 급물살에 떠내려가다가 또, 불

쑥 자식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식문제라는 사실에 또 마음이 빠져서 그것에 현실감을 느끼며…
현실감이라는 게 사실에 빠져있는 마음을 말해요, 마음이 사실에 빠질 때 현실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나라의 문제, 사회문제, 가정문제, 직장문제, 건강문제, 자식문제, 부부간의 문제 등 이러한 사실들에 끊임없이 마음이 빠져서 현실감의 급물살을 타고 가다가는 반드시 이 세상의 삶에 이어져 있는 지옥폭포로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라지비유에서는 종자를 말합니다, 종자.
하늘종자가 있고 이 땅의 종자, 마귀의 종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종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24m 급물살이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 정말 갖가지 물살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갖가지 급물살들이 끊임없이 시간을 따라 흘러들어오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빠져 들어가는 것이 현실감이에요, 현실감.
'아, 돈이 없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현실감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의 사실들에 빠져서 세상의 사실들을 현실로 느끼며 살다가, 세상이 완료되면 지옥폭포와 연결되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24m 구간 안에서 탈출을 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마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현실로 느끼는 겁니다, 천국을.
제1의 현실, 우선적인 현실, 절대적인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런던에서 폭탄테러가 나서 자식이 지하철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질 때, 지금 이 한국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실들은 제2, 제3의 현실이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렇게 절대적인 우선적인 현실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건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의 흐름을 빠져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장로님께서 사업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 되서 온통 마음이 사업이 안 된다는 사실에 빠져서 천국이고 뭐고 다 2차, 3차로 밀려나고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 제1 현실이라서 거기에 푹 빠져서 시간이 흘러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 현실감은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런던의 폭탄테러 사건의 현장이 현실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걱정을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이 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현실로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게 현실감으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제1 현실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가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제1 현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m 의 급물살처럼 지옥폭포로 연결된 이 땅의 삶이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천국을 제1의 현실로 느끼는 것이 단칼에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전달된 천국이 제1 현실이 되기까지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 말씀하신 것이 길가 밭, 돌밭, 가시밭의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곧바로 가라지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왜일까요?
여러분, 이 가라지라는 것이 가짜 밀 또는 보리를 말합니다.
보리나 밀의 성장과정에서 곡식 낟알이 생기는 이삭이 패는 과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가라지가 가짜 밀이라고 할 정도로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농부들이 면밀히 보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자란 것을 알았겠지요.
가라지가 나자마자 안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뽑아버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해서 진짜 밀을 뽑게 된다든지 발로 밟는다든지 한다는 뜻이 아니라, 면밀하게 말하면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분이 쉽지 않다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앞에 길가 밭, 돌밭, 가시밭이 있었어요.

천국을 받아들여서 천국이 제1 현실이 되는 데에는 세상의 흐름이 끝나는 지점까지 가야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24m 지옥폭포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도 탈출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100m 앞이나 1Km 앞에서는 돌밭처럼, 길가 밭처럼, 가시밭처럼 굴다가 지옥폭포 직전 24m 구간에서 구출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베드로는 풍랑에 배가 젖기 전에 이미 마음이 젖은 겁니다.
풍랑 만난 그 사실에 마음이 빠져들어 가서 그 풍랑 만났다는 상태를 현실감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잠을 주무십니까?
마음이 풍랑 만나 있는 몸이 처하고 있는 상태를 제1 현실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 상황을 빠져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뽀송뽀송하게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랑 만난 사실에 마음이 젖어들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이 젖어들어 간 겁니다.

이러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내일 목이 잘려 죽기로 되었을 때 잠을 잡니다.
변한 거예요, 마음이 옮겨간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길가 밭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국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셔도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밭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활짝 깨서 좋아하며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맙니다.
가시밭 상태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진리에 놀라고 주님의 천국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식민지하에 있는 조국을 어떻게 독립을 시킬 것이며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한 자리 할 것이냐,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함께 커갑니다.
이때에 감옥에서 내일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천국이 제1 현실이 되기 이전에 베드로의 삶이 끝났거나 심판이 주어졌다면 베드로는 가라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종자가 있다는 겁니다, 종자가.
천국종자가 있는데, 이 천국종자라도 끝까지 가 봐야지 천국을 제1 현실로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라지와 밀이 섞여있을 때, 완전히 낟알이 패기 전까지는 어느 게 가라지고 어느 게 밀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전해 봅니다, 길가 밭 같아요.
‘천국은 무슨 빌어먹을 천국이냐, 당장 목구멍으로 넘길 쌀 한 톨이 없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르르 주님을 따라옵니다.
기뻐 날뜁니다, 주님께서 다 쫓아내십니다, 다 돌밭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과정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주어지면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갖고 오지만, ‘아!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마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끝이 났다면 사도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사울로 살다가 가라지로 분류되는 거지요.
주님이 길가 밭을 얘기하시고 돌밭, 가시밭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의 말씀 앞에서 돌밭처럼, 길가 밭처럼, 가시밭처럼 굴고 있더라도 하늘의 종자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좋다고 하지만 끝내 천국을 제1 현실로 삼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사실들의 급물살에 마음이 빠져서 세상을 현실감으로 느끼며 살다가 지옥폭포로 연결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의 삶의 흐름에 이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위에 있는 천국으로 마음이 이 세상의 흐름을 벗어나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제1의 현실로 느끼는 게 아니라 천국을 제1 현실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24m의 급물살, 그 뒤에는 지옥폭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이 흐름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사실들에 마음이 빠져서 현실감을 갖고 세상을 대하며 사는 흐름 속에 빠져있다가는, 돈 문제, 건강문제, 자식문제, 이러한 현실문제에 빠져있다가는 반드시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이 흐름 바깥에 있어요.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현실감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의 급물살, 이제 내가 24m 흐르고 내일 곧바로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상 흐름에 빠져서 세상문제를 현실로 느끼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폭포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구리뱀 장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산 자다' 이럴 때 하나님께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기 잡을 때 고기를 몰 듯 내 마음을 하늘로 몰아가는 게 십자가사건입니다.
자꾸 하늘로 모는 거예요, 자꾸 하늘을 향하여 길을 열어놓고 땅을 향해서는 이 세상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는 마음이 뽀송뽀송 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천국이 제1 현실로 느껴지고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마음이 떠나버린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현실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섭리에 따라 이끌어져 갈 것이에요.
그것이 순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의 번창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천국 현실을 제1의 현실로 갖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오래 사는 것과, 순교해서 일찍 죽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이 번성해도 나의 제1 현실이 아니고, 순교를 당해도 그것이 나의 제1 현실이 아니니까.
천국이 제1 현실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현실감을 이래도 저래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24m의 급물살,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지옥폭포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탈출하는 게 구원입니다, 살아있을 때.
끝까지 세상의 사실에 마음이 빠져있는 세상적 현실감으로 산다는 것은 급물살에 빠져서 나이아가라폭포에서 떨어지듯이 지옥폭포로 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24m 급물살에서 빠져나와 천국을 제1 현실로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도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 세상의 급물살이 우리 앞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 건강문제, 가정문제, 직장문제, 부부문제, 돈 문제, 이 모든 급물살에 마음이 빠져서 세상에 대해 현실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오직 천국만이 제1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현실감을 통하여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